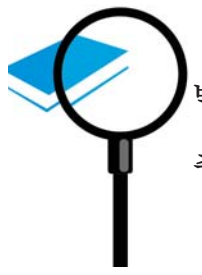


세상 바꾸는 개혁, 과감한 실천만이 성공 이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정도전의 시대를 읽다

김진섭 지음



21대 선량들을 뽑는 선거가 끝나면서 이후 전개될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이들은 왜 선택을 받았을까. 그리고 낙선한 후보들은 왜 유권자들로 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을까.

선거가 끝나고 전개되는 여야의 다툼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이는 팽팽한 대립은, 외견상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듯하다.

오늘의 시대에 다시 바라봐야 할 조선의 선각자가 있다면 삼봉 정도전이 아닐까 싶다. 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시련 속에서 길을 찾았던 정도전은,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온몸으로 실천했다.

정치 혼돈의 시대에 정도전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조선 건국기 재상열전',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우리 문화 이야기' 등의 저자 김진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 이사가 펴낸 '정도전의 시대를 읽다'는 민본주의 사상을 정치에 펼치려 했던 정도전의 이야기이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조선의 이념적 지주를 세운 사상가이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개혁가이자 실천가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삼봉은 조선왕조에 철저하게 외면당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했다.

저자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맞물려 움직이는 데다 중심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며 승자와 패자 또는 선과 악 등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역사의 결과에는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도전을 통해 여말선초라는 시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때는 바야흐로 14세기. 고려는 도탄에 빠진 사회였다. 민생은 파멸했으며 종교는 사회 구심점을 상실한 상태였다. 더욱이 원나라 지배로 자주성마저 잃어버렸고 전쟁이 반복됐다.

그 즈음 사적인 치부를 일삼던 귀족보다 도덕적 우위를 갖춘 신흥사대부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류에 저항하다 죽



지난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

거나 정치적 입장이 달라 정적이 되기도 했다.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입장이 분화됐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정도전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에 대한 답을 저자는 이렇게 내린다. "정도전은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즉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었던 것이다. 또한 '권력이 부조리하게 유용되는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정치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조선의 정치체제에서 유교 이외의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삼봉은 나라의 근간을 놓는데 있어 왕도정치와 민본주의를 기저로 문물제도를 정비했다. 조선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인 정치체제 연구서이자 조선왕조 최초의 법전"이다. 저자는 이 법전을 '중국의 사례와 고려의 경험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립했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와 운영 원리를 제시하여 정치를 중심으로 모든 사유(事由)를 구성했다'고 강조한다.

정도전은 인재발굴, 중앙과 지방의 관리 등 군제 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경제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저자의 삼봉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말로 요약된다. 그의 삶은 60년을 넘지 못했지만 6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세운 조선왕조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비운의 인물이지만,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담은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새로운 이념과 문화에 의한 변혁을 시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주목할 만하다."

〈지성사·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도전 캐릭터

〈지성사 제공〉

오늘의 엄마

강진아 지음

엄마를 간병하게 되면서 정아는 잘 알지 못했던 엄마의 취향을 조금씩 알게 된다. 엄마의 취향은 이랬다. 꽃을 좋아하지만 들뜬에 핀 야생화라야 맘에 들어 한다. 만약 그것을 꺾어 꽃병에 꽂으면 탐탁해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엄마의 취향은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어야지 동물원에 있으면 별로'라는 것이다.

흥미대 시작디자인과와 한예종 영화과를 졸업한 강진아 작가가 장편 '오늘의 엄마'를 펴냈다. 소설은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25번으로 출간됐으며 다수의 단편영화와 장편영화를 연출한 작가의 예술적 심미안이 녹아 있다.

소설은 갑작스런 사고로 애인을 잃은 정아가 겪는 상실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엄마와의 관계를 다룬다. 옛 애인에 대한 기억에 빠져 있는 정아는 어느 날 언니에게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는다. 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것. 아무런 언니 정미에 비해 정아는 세상일에 늦되고 매사가 분명치 않다.

두 자매의 서울과 부산, 경주를 오가는 간병기가 시작된다. 이별만큼 필연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해 내는 방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병든 엄마 곁을 지키는 정아의 유치한 투정, 짜증과 무심이 반복된다.

이렇듯 소설은 착한 딸이고 싶지만 실제 '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인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엔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지닌 연약함의 부분이다.

김초엽 소설가는 추천의 글에서 "슬픔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마음들이 이별에는 것들이 있고, 사랑이 복잡하듯, 상실 역시 복잡하는 것. 떠난다는 것은 동시에 어딘가에 남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평한다.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무도 하지 못한 말

최영미 지음

첫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후 따라붙은 여러 꼬리표로 고립된 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다. 얼마 전에는 문단 미투를 고발하는 등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했다.

최영미 시인. 언급한 대로 베스트셀러 시인임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고, 문단 내 미투 과정에서 외롭게 싸워야 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리란, 시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은 그 이상일 터다.

이번에 최영미 시인이 산문집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펴냈다. 9년 만에 발간한 산문집에서 시인은 삶의 희망을 불붙게 하는 시선과 사유를 견지한다.

시인은 주위 사람들 권유로 지난 2016년 봄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일기를 쓰듯 독자들에게 소통해왔다. 매일의 기록과 기록의 글들이 책의 모태가 됐다. 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22 쪽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배치했다. 페이스북과 지면을 통해 공개했던 글이지만 책으로 엮으려 문장을 다듬고 보충했다.

"세상과 넓게 소통하고 크게 부딪쳤던 내 삶의 궤적이 여기에 있다. 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나라고 들이대려니 조금 민망하다. 나의 가장 밑바닥, 뜨거운 분노와 슬픔, 출렁이던 기쁨의 순간들을 기록한…… 시시하고 소소하나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시대의 일기로 읽히기 바란다."

이처럼 책에는 '자신을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끝없이 변화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고만고만한 소박한 일상이지만 시인의 사유와 눈을 통해 그 시간은 빛이 나는 순간으로 변모된다.

〈해냄·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빼빼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이주현 지음

한겨레 신문 기자 이주현이 조울병과 함께한 20여년을 기록한 '빼빼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를 출간했다.

저자는 조울병을 비롯해 다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정감다리를 놓고 싶어 펜을 들었다. 그들에게 응원의 말이 되어줄 36편의 이야기를 한 편의 책으로 엮은 것.

그는 조울병을 사막에 비유한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지글거리는 사막의 태양, 밤이면 영하로 내려가는 극단적 추위가 교차하는 극한 환경은 생명을 품을 만한 곳이 못 된다고 본다. 그는 정신 질환으로 세상과 소통할 방도를 잃어버린 이들은 이러한 사막에 놓여있다고 설명한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두 번 입원한 일과 병원 생활, 그리고 복직. 그는 평범한 삶을 향한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사랑의 힘'으로 희망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고, 가족, 친구, 동료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에 살아갈 힘을 얻었다. 걷기와 달리기, 여행으로 순수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도움이 됐다.

"다만, 내게 조증을 호소하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다. 의사를 찾아가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사람과의 접촉면을 줄여라. 잘 안 되겠지만 혼자서 빈둥대라. 울증 환자라면 이런 조언을 할 거다. 의사를 찾아가라. 아깝더라도 업무량을 줄여라. 산책하라."

책은 저자의 조언과 함께 '주치의 김원과의 짧은 대담'을 통한 조울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 치료 방법, 환자가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도 담고 있다.

〈한겨레출판·1만3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

